



# 멕시코 군비 지출 4년새 53% 증가, 대부분 범죄 대응용

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는 2018년 GDP의 0.48%를 국방에 할당했지만 2022년에는 0.6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브뤼셀-스톡홀름 국제 평화 연구소(SIPRI)의 업데이트된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 기간 동안 멕시코의 군사 지출이 상당히 증가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무기 구매에 관한 주요 기관 중 한 곳의 연구원이 EL UNIVERSAL에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멕시코의 군사 지출은 2018년과 2022년 사이에 자국 통화 기준으로 53% 증가했다.

이 지표를 2022년 불변 가격으로 달러로 환산하면 국가 군사 예산의 증가율은 25%다.

2021년과 2022년 사이에 군에 투입된 자금은 현지 통화 기준으로 2.4%, 달러 기준으로 9.7% 감소했는데 GDP 대비 국방 예산은 2018년 멕시코가 0.48%를 지출



한 반면, 2022년에는 0.61%로 증가했다. 공공 정책에서도 동일한 상승 추세를 볼 수 있는데 공공 지출의 비율 측면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 정부는 2018년에는 1.86%, 2022년에는 2.22%를 군대에 할당했다.

"멕시코의 군사비 지출은 2022년 전 세계 총액의 0.4%에 불과하기 때문에 글로벌 추세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중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가장 큰 지출을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중미와 카리브해 지역의 동향에는 영향을 미쳤다"고 SIPRI의 군사

지출 및 무기 생산 프로그램의 선임 연구원 Diego Lopes da Silva는 밝혔다. 분석가들에 따르면 2018년부터 멕시코 정부는 헬리콥터와 수송기 구매를 계획했지만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았거나 취소되었는데 Cessna 208 Caravan 교체 수송기와 H-725 Caracal (H225M) 헬리콥터가 이에 해당된다.

반면 육군은 2017년부터 네덜란드 Flesinga 조선소에서 건조 중인 SIGMA 10514 호위함에 탑재될 해군 무기와 미사일은 인도받았다. 무기도입의 우선순위는 일

반적으로 첨단장비 탑재 여부인데 멕시코는 이와 달리 마약 카르텔과 싸우거나 작전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는 용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사실이 눈길을 끈다.

헬기, 경수송기, 경장갑차 등 국내 대범죄 작전에 적합한 정교하지 않고 종종 이중 용도로 사용되는 시스템이다.

내부 치안과 거의 관련이 없고 어떤 위협을 해결할지 불분명한 프리깃함과 대잠 헬기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실제 도입으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특히, 군비 지출이 증가했지만 장비 현대화나 기존 물자 교체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국을 국경으로 두고 있는 멕시코는 전쟁 위험이 없어 이같은 도입 방식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2014~2018년과 2019~2023년 사이 무기 수입량은 75% 감소했는데 선박, 해군 무기, 미사일, 포병을 제외한 모든 범주의 재래식 무기가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 두 달 반 앞으로 다가온 멕시코 대선, 현재 여론조사 결과는?

오는 6월2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는 멕시코 역사상 최대규모라는 총선을 포함하고 있는데 여당후보의 우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공식 선거전 조사와 현재의 조사가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지지세가 완고하다. 집권 여당인 Morena당 후보인 클라우디아 쉐인바움의 확실한 선두를 굳히고 있는데 주요 야3당 연합

후보인 소칠 갈베스는 오차범위 밖인 13% 포인트로 뒤처져 있다. 이같은 지지세에 여당은 "절대 패할 일은 없을 것" 이라는 분위기로 상당히 여유로운 모습이다. 쉽게 말해 표정관리를 하고 있는 셈이다.

반면, 의회 의원을 선출하는 총선은 여당이 절대다수 당선으로 헌법 개정까지 하겠다고 호

언장담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여론조사로는 그럴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대선과 달리 의원 선거는 여당의 우세속에서도 각 당별로 나름 지지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또 한가지, 현 집권여당 대선후보는 2018년 얻은 현 대통령보다 득표율에서 이를 뛰어넘지 못할 것이라는 점이다. 주목되는 것은 여당내

에서 알력이 상당한데 특히, 대선후보와 여당 시티시장 후보 사이의 냉담함 등 여당내에서 이전투구가 상당하다. 시티시장을 강력하게 밀었던 현 대통령과 이를 반대했던 현 후보간 보이지 않던 알력이 당선 이후 前정부와 차별화 시도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24 법정 공휴일	DÍAS FESTIVOS OFICIALES (Días de descanso obligatorios)
1월 01일 신년	9월 16일 독립기념일
2월 05일 헌법의 날	11월 2일 망자의 날*
3월 18일 베니토 후아레스 탄생일	11월 20일 혁명기념일
3월 28일~29일 부활절*	12월 12일 과달루페 성모축일*
5월 1일 노동절	12월 25일 성탄절
5월 5일 뿌에블라 전승기념일*	

(\*비공식: 일반적으로 휴무이나 법정 공휴일은 아님)

환율 정보 (오전10:00분 현재 - Banamex)			
멕시코 페소 / USD		한국 원화 / USD	
살 때	16.21	살 때	1,363
팔 때	17.14	팔 때	1,317

자동차 배기가스 검사 안내	
번호판	끝자리 검사 기간
1, 2번	04-05월 / 10-11월
3, 4번	03-04월 / 09-10월
5, 6번	01-02월 / 07-08월
7, 8번	02-03월 / 08-09월
9, 0번	05-06월 / 11-12월

# 총알사이에 투표하기..., 이제는 후보자 친척까지 범죄 폭력

선거철이 아니어도 범죄율이 높은 멕시코에서 다가오는 선거를 앞두고는 정파적 이익에 따라 후보자는 물론, 후보자 친척에 까지 범죄폭력이 가해지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주요 폭력 사건은 선거와 관련된 것인데 후보자에 대한 직접적인 폭력 사건 외에도 범죄가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경로는 가족에 대한 공격인 것으로 파악됐다.

Data Cívica의 Votar entre balas 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지난 2월까지 공격을 받은 정치인의 친척은 113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 78%, 즉 88명이 살해됐다.

자료에서는, 이러한 공격이 조직범죄에 의해 정치적 결정과 선거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는데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공격을 받은 출마 후보자 가족 구성원의 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사카테카스 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州로 밝혀졌는데 2월에는 집권여당의 실세인 리카르도 몬레알(Ricardo Monreal) 상원의원의 친척 두 명이 Fresnillo에서 살해당하기도 했다.

해당 자치단체인 Fresnillo시의 관리직인 호르헤 안토니오 몬레



알(Jorge Antonio Monreal)과 시의회 사회 개발 국장이자 상원의원의 처남인 후안 페레스 가르다도(Juan Pérez Guardado)다.

또한, 모레나당의 Chilapa 시장 후보인 Tomás Morales Patrón이 지난 화요일 집에 도착했을 때 총에 맞아 사망했으며 2015년 Cuajinicuilapa 시장 후보였던 전직 시민운동(MC) 후보가 Costa Chica에서 Honorio David Morales Sandoval과 그의 아내가 수요일 아침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나 공안요원도 예외는 아닌데 과달루페에서는 경찰서장 집에 침입한 무장 괴한들에게 납치됐고, 칼레라에서는 경찰서장이 이발을 하던 중 공격을 받았다.

선거 기간이 시작된 이후 사카테카스에서 발생한 정치범죄 폭력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지난 달 현 시장 알란 무리요 무리요(Alan Murillo Murillo)의 형제인 세실리오 무리요(Cecilio Murillo)가 솜브레레테(Sombrerete) 시에서 살해당했는데 세실리오는 2018년과 2021년에도 지방의회장 후보였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22년에는 살인 21건, 무장공격 1건, 공격 3건, 납치 1건이 발생했으며 지난해에는 살인 20건, 무장공격 5건, 공격 1건, 납치 5건이 발생했다. 2023년에는 정치폭력 범죄 사건이 574건 발생했는데 2022년에는 486건보다 급증했다.

Data Cívica에 따르면, 2024년 현재까지 국가 차원에서 폭력이 발생한 단체는 Jalisco, Guerrero, Guanajuato, Colima, State of Mexico, Zacatecas, Morelos, Veracruz, Baja California, Michoacán, Chiapas, Ciudad

from Mexico, Sonora, Nuevo Leon, Tamaulipas y Tabasco 등이다. 이 단체는 또한 2018년부터 2024년 사이에 국가 차원에서 기록된 폭력에 대한 데이터도 수집했는데 목록의 1위를 차지한 지역은 게레로(Guerrero)로 195건이다.

과나후아토 175, 베라크루즈 165, 오악사카 118, Jalisco는 97, Morelos는 96건으로 뒤를 잇고 있다.

멕시코 선거폭력은 국가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대부분 조직범죄단의 이익에 협조여부에 따라 처형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선거폭력 사례가 빈발하자 뒤늦게 정부에서 별도의 경찰과 지역보안요원을 후보자 경호에 투입했지만 워낙 많은 출마자수와 넓은 지역으로 인해 사실상 큰 효과는 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멕시코 정치가 부패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같은 지역 조직과의 철저한 분리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국가 치안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선거폭력행위는 단기간에 근절되기는 어려워 보여 "멕시코 정치인들은 목숨을 담보로 출마하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당신의 재산을 지켜드리는 든든한 조연자

멕시코에서 재산을 안전하고 확실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여유자금으로 투자 또는 저축 보험에 가입하시면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 새로운 투자 펀드에 투자, 고수익
- 프랜차이즈에 직접 투자하거나 신규 사업 추진시 혜택
- 노후 걱정 없이 품위 있는 은퇴를 위해 사용
- 자녀를 위한 대학 학자금으로 사용
- 집을 구매 할 때 지원
- 여행을 떠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여행경비 지원 혜택
- Allianz Mexico의 옵티막스 상품을 통해 큰 혜택을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은 돈을 버는 사람이 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번 돈으로 더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더 성공한다" 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저에게 연락하세요!

이메일: [begj@bgjtuasesorseguro.com](mailto:begj@bgjtuasesorseguro.com)

[bernardoegj@begjtuasesorseguro.com.mx](mailto:bernardoegj@begjtuasesorseguro.com.mx)

[www.bgjtuasesorseguro.com/seguros-e-inversiones-0-0-0-0-0](http://www.bgjtuasesorseguro.com/seguros-e-inversiones-0-0-0-0-0)

전화: 56-2802-8481 담당: Bernardo Gonzales Jimenez



# 20년 동안 적자 내고 있는 멕시코 정유 공장들

'에너지 민족주의' 를 내세우며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멕시코 정부의 정유공장이 거의 대부분 적자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경쟁력 부족과 낮은 투자로 인한 비효율이 가져온 결과라고 말한다.

자료가 기록되기 시작한 2002년부터 현재까지 국영석유회사인 페멕스 정유공장 총 손실은 30억 7,700만 폐소에 이른다.

현재 멕시코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6개의 Petroleos Mexicanos(Pemex) 정유소 감사 재무제표에 따르면 수치를 확인할 수 있는 연도인 2002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손실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알려진 Pemex Refinaci3n(정유부분)의 사업과

2015년부터 현재까지 Pemex Industrial Transformation(산업 혁신)으로 알려진 사업 부문은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30억 7,700만 폐소의 누적 손실을 기록했다.

연방 정부가 교육, 보안, 보건 및 환경 분야에 대한 사회 지출, 물리적 투자 및 급여에 매년 투자하는 금액과 Dos Bocas 정유소 건설에 사용된 예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100%가 넘는 추가 비용, 300%가 넘는 지출 증가를 동반한 마야 열차, 심지어 70% 공정에 이른 텍스코코의 뉴멕시코시티 국제공항(NAIM)의 취소로 인한 손실 등 현 정부 6년간 예산초과는 거의 모든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Marcos y Asociados Consultora Energ3tica의 파트너인 Luis Miguel Labardini에 따

르면, 원래 국가의 모든 정유소는 경질 원유를 처리하도록 구성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멕시코는 원유보다 저렴하고 오염이 심한 폐기물인 연료유를 더 많이 생산하는 칸타렐 거대 유전 등 중질유에 대한 추출 개발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뿐만 아니라, 멕시코 국영석유회사 페멕스는 정제부분에서 경쟁이 없는 독점 구조이기 때문에 기술개발에 효율적으로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정제 시스템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민간 부문이 참여를 허용하여 새로운 시설을 설치하거나 Pemex가 보유한 시설을 인수하여 이를 생산성 높은 회사로 변화시켜야만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현재까지 멕시코에서 운영되고

있는 6개의 정유소는 1914년에서 1979년 사이에 건설되었다. Andr3s Manuel L3pez Obrador 대통령은 6년 임기 동안 Dos Bocas 공장, Tabasco 건설을 강행하면서 과거 정부에서 제대로 투자를 하지 않아 생긴 문제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Felipe Calder3n 정부에서는 투자를 했지만 Enrique Pe3a Nieto 정부에서는 2014년부터 시작된 유가로 인해 투자를 줄이고 운영을 축소했을 뿐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지적한다.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촉매에 투자해야 하며, 정유소의 생산제품을 변경하여 수익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지만 현실성이 낮아 공장의 획기적인 수익구조로의 전환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Finanzas - Fiscal - Legal Corporativo



홈페이지: [www.fratelliconsultores.mx](http://www.fratelliconsultores.mx)

## Monterrey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을 위한

# 금융, 세금, 기업 법률 자문 서비스 및 컨설턴트

당사만의 특별한 고부가가치의 정보제공

- 폭넓은 경험과 경륜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들이 설립한 세무 및 법률 컨설턴트 업체
- 멕시코 정부의 복잡하고 다양한 요구사항에 맞는 비즈니스 솔루션 제공
- 각 기업체마다 상이한 특정 요구 사항에 최적화된 서비스 정보 제공
- 미국, 멕시코 국경 물류의 핵심 정보와 지역 프로젝트에 최상의 서비스 제공
- 시간엄수 / 빠른 업무처리 / 철저한 비밀보장으로 신뢰 구축

주소: Eucalipto No. 208 Poniente, Colonia del Prado, Monterrey, Nuevo Le3n, M3xico, C.P. 64410.

사무실: 81 252-78218



+ 52 811 311 3084

이메일: [atv@fratelliconsultores.mx](mailto:atv@fratelliconsultores.mx)

## 멕시코 대통령, 절대 권력에 화려했지만.., "레임덕 피하지 못했다"

현 멕시코 대통령은 국민의 많은 지지를 받으며 임기를 시작했고 현재도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지만, 퇴임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지금은 고독한 일정을 보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영원할 것 같던 권력도 내려놓아야 하기에 그 역시 '레임덕' 현상은 피할 수가 없었던 모양이다.

임기 6개월을 남겨 놓은 현 시점에서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점점 더 외로워지고 화나고 짜증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그의 외모에서도 필연적으로 권력의 쇠약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통령이라는 권력으로 새로 사귀 친구들과 기업인, 정치인 인사들은 6년 임기의 황혼이 다가오자 그와 멀어지고 있거나 배신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

야당시절부터 그의 투쟁에 동행하며 전적으로 신뢰했던 오랜 친구들은 "대통령이 자신들을 이용하고, 속이고, 더 이상 그를 섬기지 않거나 동의하지 않을 때 단호하게 버렸다"고 비난하면서 그와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현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을 존중하며 자주 방문하여 선거 운동의 모든 과정과 입장, 중요한 결정 및 모든 단계에 대해 대통령과 상의하는 후임자(셰인바움)만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권력 이양이 된 이후부터는 지금까지의 전직 대통령의 절대 권력에 대한 비판 때문이라도 더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며 결국은 자신만의 스타일로 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으로 보여 비록 자신이 지명한 후임자라고 할지라도 어떤 변화가 올지 예측이 어렵다.

이를 의식한 듯, 스스로는 Claudia Sheinbaum의 정부에 개입은 없을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현 대통령의 레임덕 현상은 올



해 들어서면서 뚜렷해지기 시작했다.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주요 사안에 대한 안건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면담 요청도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대통령을 만나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첫 해와는 달리, 지금도 여전히 쉽지는 않지만 짐무실로 찾아오는 인사들에 대해 과거와 달리 훨씬 더 차분하게 맞이하고 있으며 측근이나 짐무실도 믿을 수 없다는 듯 때로는 방문객과 복도를 함께 걸으면서 자신의 임기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다는 사실을 설명한다는 것이다.

"나는 최고의 상사가 되기를 열망하지도, 도덕적 지도자가 되기를 열망하지도 않는다. 9월 말에 퇴임하면 나의 고향으로 돌아가 여생을 즐길 것"이라며 마음을 비웠다는 소회를 밝혔지만 과연 그럴까? 라는 의문표도 붙는다. 절대 권력자로 6년간 멕시코를 통치했던 그였기 때문이다.

멕시코 대통령은 퇴임하면 자신의 부모가 물려준 고향 농장으로 돌아간다고 수차례에 걸쳐 계획을 밝힌 만큼 '귀향' 일정은 예정대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Chiapas Palenque에 있는 농장은 4천여평 이르는 규모로 2020년 그의 부모가 물려준 것이다. 농장이름이 "La Chingada"인데 속된 표현으로도 잘 인용되는 이름을 두고 화제가 되기도 했다. 멕시코 혁명이 한창이던 시기에 혁명군 지도자가 머물며 붙인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재임 기간 동안 엄청난 권력과 개혁 정치로 전 세계로부터 많은 관심과 찬사를 받기도 했으며 멕시코 국내에서는 일부 계층으로부터 거의 신에 가까운 대우를 받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을 두고 멕시코 정치체제를 신격화 했다는 비판도 동시에 받고 있다.

하지만, 6년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자신을 견고하게 지지하던 승배(?) 세력들과 도 정권이양 이후부터 단절되는 정치설계는 매우 자연스러운 일로 궁전의 어두운 고독이 그가 받아들여 할 현실이 된 것이다. 필연적으로 그의 대통령 재임기간에 대한 개인적, 역사적 평가도 뒤따를 것이다.

(자신의 집권으로) "모든 것이 매우 훌륭하고 사람들은 행복합니다"라는 일상화되었던 정치 선전과 자신이 만든 당의 우수함과 반대로 야당을 폄하하고 공격하는 것으로 분열의 정치를 해 온 것에 대한 비판도 이제부터 시작될 것이다.

특히, 현 정부 들어 거의 국가를 개조하다시피 하며 내놓은 각종 정책들은 자유시장 원리를 배척하며 통제 불가능성, 치안 및 부패라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기도 하다.

기업인, 사법부, 언론인, 활동가, 외국 정부와의 소송 또는 보수층에 대한 음모 이론과 심지어 쿠데타 음모로 공격하는 부문에서는 늘 상 Lopez Obrador 대통령이 뒷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었다.

끝나가는 정부와 그가 떠나는 나라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꿈꾸고 제안했던 멕시코와 전혀 같지 않다. 그의 정부와 가족의 만연한 부패, 불안, 폭력, 마약 밀매의 불 처벌, 파괴되고 점점 멀어지는 의료 시스템, 그리고 그의 뒤를 잇는 사람이 물려받게 될 공공 재정의 역사적인 공백(적자)이 멕시코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공공 자원의 재량적 관리와 마약 열차 등 개통 후에도 작동 여부와 실행 가능 여부를 알 수 없는 파라오적 작품은 이미 궁전의 고독한 세입자가 후세들에게 남기게 될 불안한 유산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들이다.

지난 6년 동안 국가는 아무것도 변화하지 않았고, 구조적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거나 적어도 해결되기 시작하지 않았다고 야당은 물론, 언론은 비판하고 있다.

변화를 가져온 사람이었고, 희망을 심어주는 사회 지도자에서 권위 주의적인 사람, 과거를 그리워하고 미래를 포기한 통치자 변한, 로페스 오브라도르 였다는 것이다.

멕시코인들의 많은 지지로 시작되었지만, 실수, 변덕, 비민주적이고 퇴행적인 결정, 대통령 연단의 매일 지속적이고 영구적인 증오 메시지, 공격 및 비난을 통해 멕시코를 낭비하면서 대부분의 전임자들처럼 그 역시 가장 절대적인 고독 속에서 끝나가고 있는 것이다.

이번 대선은 비록 여당이 재집권에 성공하더라도 로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과 현 여당후보에 대한 지지보다는, 야당의 무능력과 과거 정권의 부패에 대한 민심이반의 유효함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정치 평론가들의 해석에 공감이가는 부분이다.

6월2일은 치러지는 멕시코 대선, 현 로페즈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마지막 그림자가 비춰지는 찰나의 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 가뭄으로 인해 비상사태 발생한 소노라

에르모시요(Hermosillo), 소노라(Sonora)에 속한 72개 지방자치단체 중 71개 지방자치단체가 가뭄을 겪고 있는데 지역에 물을 공급하는 댐의 수위는 14% 까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극심한 가뭄은 사람이 소비하는 식수 분배도 어려워지면서 주정부는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러한 심각한 상황으로 인해 당국은 특히 물 부족이 매우 심각한 남부 지역에서 곡물 수확을 취소하고 생우를 퇴거시키는 등 긴급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역부족이다.

국가수자원위원회(Conagua)의 OCNO(Northwest Basin Organization) 시스템의 수문, 기후 및 댐 정보에 따르면, 2024년 3월 15일 현재 10개 댐의 저수율은 14.2%로 거의 바닥을 보일 정도까지 낮아졌다.

Yaqui 강 유역에서 공급되는 댐 중 Lázaro Cárdenas(La Angostura)의 저장량은 23.7%다. 이외에 Plutarco Elías Calles(El Novillo) 16.4%, Ilvaro Obregón(El Oviachic) 18%, Abraham González 28.2%. 관개 구역 041-018 시스템은 17.9%로 대부분 바닥까지 저수율이 떨어

어진 상태다.

Mayo강 유역에서 공급되는 댐은 저장량이 3%인 La Bicentenario와 0.7%가 저장되어 있는 Adolfo Ruiz Cortines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주 남부에 심각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Rodolfo Félix Valdés(El Molinito) 댐은 Sonora 강에서 공급되는데, 이 댐은 Hermosillo의 일부에 8%를 공급하는 반면 Abelardo L. Rodríguez 댐은 0%, 공급이 중단된 상태다.

Cuauhtémoc 댐은 Altar 강 유역에서 공급되며 용량의 3.4%를 차지하는 반면 Mítape 강에서 저장하는 Ignacio R. Alatorre 댐 역시 0%다. 이러한 긴급한 상황을 고려하여 Alfonso Durazo

Montaño 주지사는 지난 2월 22일 목요일 주 정부 관보에 발표된 소노라(Sonora)에 물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이 경보는 2024년까지 중간(D1), 심각한(D2), 극심한(D3) 또는 예외적인(D4) 가뭄 발생 측면에서 측정된 해당 기관의 수문학 유역의 물 부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올해 1월 31일 멕시코 가뭄 모니터에 따르면, San Luis Río Colorado 지방자치단체는 어떤 분류에도 속하지 않은 유일한 도시이며, Puerto Peñasco와 Plutarco Elías Calles 두 곳은 가뭄이 보통 수준이고 다른 세 곳은 가뭄 상태다. 반면, Altar, Caborca 및 Naco는 심각한 가뭄에 이르렀다.

Northwest Basin Agency의 총책임자인 Jesús Antonio Cruz Varela는 EL UNIVERSAL에 "Nacozari de García가 인간이 소비하는 물 공급 문제를 겪는 최초의 자치단체"라고 밝혔다.

향후 3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않으면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데 Sonora 역사상 가장 건조한 해가 될 전망이다. 현재까지 강우량은 과거 평균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고 있다.

물 부족은 농작물에도 직접적인 피해를 동반하는데 Yaqui와 Mayo 계곡의 관개용 물이 부족하여 옥수수 재배가 제한되고 있다.

옥수수 재배에는 5~6개의 구호작물이 필요하고 밀은 3개의 구호관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생산자에게 다른 작물로 전환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가뭄으로 농작물 재배가 어려운 점도 있지만 낮은 국제 곡물 가격과 연방 정부의 지원 부족도 농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다.

옥수수는 톤당 가격이 작년보다 낮아 국제 및 국내 시장이 끔찍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지역의 주요 작물은 밀, 옥수수, 홍화, 야채 및 감귤류다.

## 국제 이주 화물

숙련된 인원과 장비로 직접 서비스 합니다.

- 30년 경력
- 신속한 견적
- 양질의 풍부한 포장재료 사용 (OUT BOUND)
- 다양한 사양의 벤 & 박스트럭 보유 (1톤-25톤)

 PanTrans HHGDS

홍승표 전무: sphong@pantrans.com.mx  
 이남수 이사: leens@pantrans.com.mx  
 Web: www.pantrans.com.mx  
 YouTube: PanTrans México  
 Tel.: (52 -55) 5566 8955, 5566 6456,



몬테레이 / 시티

## 비자문제, 걱정 마세요! 완벽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개인 맞춤형 지원'으로 모든 유형의 비자업무 취급

- ◆취업비자 \$10,000
- ◆비자연장 \$5,000
- ◆임시 및 영주권자 신분 변경 \$6,000
- ◆직장, 주소, 결혼 여부 변경 \$4,000
- ◆국적변경 \$4,000
- ◆일 할 수 있는 비자로 변경 \$6,000
- ◆고용주 등록 증명서 발급 \$6,000
- ◆이민서류 교환 \$4,000

**RYF CONSULTING, S.A. de C.V.**

주소: Aguilas # 200 A Colonia, Las Golondrinas Apodaca N.L.  
 전화: Tel(oficina) (81) 83324197, Cel. 8119445318 Lic.  
 메일: rsalas@ryfconsulting.mx / ysalas@ryfconsulting.mx

## 자동차 부품회사 Minth, Aguas calientes에 1억 7천만 달러 투자

중국 자동차 부품업체 민스그룹(Minth Group)의 자회사 민스멕시코(Minth Mexico)가 중부 아과스칼리엔테스 주에 두 개의 신규 공장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다.

전기차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공장 and 페인트 공정용 배터리를 생산하는 두 공장은 약 1,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inth는 공장 건설을 위해 1억 7,350만 달러를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Ningbo(닝보)에 본사를 둔 Minth는 아과스칼리엔테스(Aguascalientes) 주 정부가 이번 확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설은 전기 자동차용 배터리 하우징과 알루미늄 부품 생산에 중점을 둘 것이며 고급 페인트 주입 및 플라스틱 성형 기술



을 가능하게 하는 최첨단 기술을 접목한 공장이 될 것"이라고 회사 관계자는 밝히고 있다.

아과스칼리엔테스는 멕시코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다.

중북부 주에 위치한 이곳은 2개의 닛산 공장 and 메르세데스-벤츠 그룹과 닛산의 합작 투자인 협력 제조 공장(Compas)을 포함하여 10개의 조립 공장이 있다.

각 회사는 공장 건설과 운영을

위해 10억 달러를 투자했다.

멕시코에서 제조 시설을 설립하고 관리하는 것을 전문으로 하는 ISO 인증 회사인 Co-Production International(CPI)은 Aguascalientes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이곳은 매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노동력과 낮은 이직률을 갖춘 강력하고 성숙한 제조 지역"이라면서 지난 48년 동안 산업 파업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같은 여건으로 아과스칼리엔테스는 재정적으로 안전한 투자 장소로도 간주되고 있어 앞으로 더욱 많은 자동차 관련 기업들의 투자가 예정되어 있다.

CPI에 따르면 스탠다드 앤 푸어스(Standard and Poor's)와 피치

(Fitch) 모두 이 주를 최고 등급인 AAA보다 한 단계 낮은 AA+ 등급을 매겼다.

주정부에 따르면, 일단 가동되면 새로운 공장은 청정 기술을 장려함으로써 보다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자동차 산업으로의 전환을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면서 이번 확장 and 동시에 주에서는 전기 자동차 충전소를 갖춘 주택 개발 건립을 고려하고 있다.

주 당국자들은 또한 공급을 보장하고 새로운 투자자를 유치하기 위해 연방전력위원회(CFE)와 협력하여 2개의 새로운 변전소를 건설하고 있으며 하나는 8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2년 중국 Ningbo Xiaogang에서 설립된 민스그룹은 2009년 멕시코에 첫 공장을 열었다.

## 멕시코서 5년새 외국인 4천명 실종, 온두라스가 가장 많은 실종자 기록

멕시코 자국민들의 납치가 거의 10만명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에 대한 납치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우려를 낳고 있다.

멕시코 내무부(Segob)에 따르면, 2019년 1월 1일부터 2024년 3월 17일까지 멕시코에서 납치, 실종된 외국인은 4,011명이며 국가로는 56개국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자 수가 가장 많은 국가는 온두라스로 268명이다.

미국(258명); 과테말라(226명), 콜롬비아(209명), 베네수엘라 150명, 쿠바 141명 순이다. 러시아인도 10명의 실종자를 기록하고 있다.

UNAM 정치학부 학자인 마르틴 이니게스(Martín Iñiguez)는 납치와 실종 문제에 대해 두 가지 유형의 외국인이 있다고 한다. 중미, 베네수엘라, 아이티 등



국내 치안이 불안하여 떠난 경우로 멕시코 국토를 횡단하여 미국 국경으로 향하는 외국인에게 해당한다. 대부분 취약한 국가 출신이다.

다음으로는, VIP 외국인, 특히 유럽, 북미, 캐나다 국가에서 관광객으로 휴가를 온 경우와 학술 교류를 위해 방문한 외국인들이다. 이들은 대부분 부유한 국가에서 온 사람들로 빈곤한 중남미 국가 출신들과는 매우

다르다. 여기서 특이한 경우는, 러시아 등 국제분쟁과 관련된 특정 국가 출신 사람들에 대해서는 납치도 피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사 납치를 했더라도 석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멕시코 납치조직의 또 다른 특징은 일반적으로 VIP 외국인을 건드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단, 타마울리파스의 마타모르스에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에게 일어난 실수처럼 실수를 하지 않는 한, 그들은 납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들은 경비도 삼엄하지만, 당국의 철저한 추적을 피할수가 없기 때문이다.

죽, 갱단의 조직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중남미 빈곤국가 출신들을 납치하거나 일반 외국인을 납치해서 몸값을 받아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멕시코 영토의 30% 이상이 마약 밀매를 포함한 조직 범죄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미국 남부 사령부의 언급에서처럼 정부의 공권력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납치가 이루어지는 만큼, 외국인, 특히 여행객들은 익히 알려진 이같은 위험지역은 절대 방문하지 말것을 당국은 충고하고 있다.

## 전기차 충전 방식두고 대립하는 멕시코 정부와 업체

멕시코도 전기차가 늘어남에 따라 충전소 확보가 급선무인데 충전방식을 두고 정부와 업체가 줄다리기를 하고 있다.

정부의 에너지 규제 기관은 충전소에 기존 5가지 기술 중 두 가지 커넥터가 있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반해 업체는 북미 표준과 일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에너지 규제 위원회(CRE)는 국내 충전소(전기 발전소)가 채택해야 할 두 가지 충전기 기술을 정의해 달라는 전기 자동차 제조업체와 대립하고 있다.

규제 당국은 한 달 전에 전기 자동차 충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에 설치될 충전소의 요건을 규정하는 합의안을 발표했는데 CRE(에너지 규제위원회)는 북미와 유럽에서 가장 널리 보급된 전기 자동차, 즉 테슬라와 중국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전기 자동차의 충전기를 표준화하는 추세를 따르지 않고 있다.

멕시코 정부는 각 주유소가 북미에서 사용되는 SAE J1772(중국 자동차) 및 NACS(테슬라), 유럽에서 사용되는 IEC, 그리고 아시아에서 주로 사용되는 CHAdeMO(중국) 및 GB/T 등 기존 5가지 기술 중 최소 두 가지 방식의 충전기를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중 하나는 Tesla 방식인데, 전기 충전소에 5가지 유형의 충전기



중 2가지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진입 장벽을 만들고 충전소 비용을 높이며 멕시코에서 전기차를 제공하는 데 관심이 있는 신규 진입자가 충전 네트워크에 개발 및 투자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Tesla는 북미에서 NACS 커넥터를 채택하는 추세가 있기 때문에 충전소가 소수의 자동차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CHAdeMO 또는 중국 차량용 GBT와 같은 커넥터를 배치하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

2023년 2월 Tesla는 자사 슈퍼차저 및 충전소 네트워크의 일부를 북미의 다른 브랜드의 전기차에 개방한다고 발표했으며, 지난 5월부터 미국과 캐나다 전기차 시장의 90% 이상이 2025년형 모델에 NACS 커넥터로 마이그레이션될 예정이다.

여기에는 Ford, General Motors, BMW, Hyundai, Kia, Mercedes Benz, Jaguar, Subaru, Mini, Genesis, Nissan, Honda, Rivian, Lucid, Toyota, Volvo, Polestar, Rolls Royce, Fisker y

Volkswagen가 포함된다.

에너지 규제위원회의 의견에 대해 CharIN(Charging Interface Initiative) 및 AI Gore의 Zero Emission Transportation Association과 조직에서는 북미 커넥터 표준을 지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 멕시코 Evergo의 상업 이사인 Daniel Abraham Lopez P[ez는 미국과 캐나다의 모든 자동차 브랜드가 가용성이 높은 효율적인 충전 네트워크를 갖기 위해 2025년에 NACS 커넥터로 마이그레이션할 예정이지만 멕시코에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당국에 멕시코가 모든 커넥터를 갖춘 제품의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면서 유럽, 북미, 중국, CHAdeMO, 테슬라 전기차를 구입하고 충전소에 도착했는데 충전 네트워크가 호환되지 않으면 전기차 보급에 큰 장애가 된다는 것이다.

즉, 하나의 커넥터가 있으면 더 많은 차량을 판매하는 데 도움이

되므로 시장 표준화로 가야 한다는 의미다.

특히, "2014년부터 정부에 충전기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했지만 성과가 없었다"면서 멕시코 정부의 에너지부서가 충전소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국 충전소 10곳 중 8곳을 운영하는 에버고(Evergo)는 "충전소에 자체 중저압 변전소가 있어 전기를 판매하고, 전기차 운전자는 신용카드와 연결된 휴대폰 앱을 통해 요금을 청구받는다"고 설명했다.

전기차 충전 비용은 지리적 위치와 충전할 에너지 양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앱은 구역별로 킬로와트시(kWh)당 가격을 표시한다.

이러한 요인에 따라 자동차 배터리 충전 비용은 휘발유를 주유하는 것보다 최대 50%까지 낮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멕시코 국가혁신산업회의소(Canacindra)의 자동차 산업 회장인 살바도르 사베드라(Salvador Saavedra)는 "전기 충전소가 어떤 충전기를 설치할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다"면서 "멕시코 국경에 거주하면서 미국으로 환승하는 경우, 멕시코에서 판매되는 전기차는 대부분 중국산이므로 미국에서는 충전할 수 없다."라고 그는 문제점을 설명한다.

## 마약에 물드어가는 멕시코, 합성 약물 Fentanilo 사용량 218% 증가

한 때는 식물성 마약이 유행했다면 지금은 가격도 저렴하지만 약효가 훨씬 더 강력한 합성약물로 대체되면서 멕시코 내부의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멕시코 보건부 국가 정신 건강 및 중독위원회(Conasama) 책임자 인 Evalinda Barr[ın Vel[quez는 지난 5년 동안 이

러한 약물의 소비는 더 많은 가용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인해 메탐페타민(metanfetaminas) 각성제 소비가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멕시코 정신 건강 및 약물 사용 관측소가 국제 마약 통제위원회(INCB)에 보고 한 바에 따르면, 2017년과 2022년 사이에 이러한 약물 사용이 218% 증가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사망을 유발하는 향정신성 물질은 알코올과 담배인데 최근들어 메탐페타민으로 인한 사망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는 비용과 접근성, 국가에 존재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폭력적인 위험 요인과 관련이 있다.

INCB(국제 마약 통제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는 2020년과 2021년 사이에 펜타닐과 메탐페타민과 같은 합성 약물 압수가 크게 증가했는데 압수된 메탐페타민의 양은 2020년 1.3톤에 비해 2021년에는 무려 4.7톤 이상에 달했다.

반면, 코카인, 대마초, 헤로인 및 기타 향정신성 물질의 압수는 감소해 대조를 이뤘다.

## 스페인군에 의해 멸망한 멕시코 마지막 황제 후손, 대선출마 선언

멕시코 마지막 황제였던 모테수마(Moctezuma) 후손이 올 6월에 치러지는 멕시코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약 500여년 전 멕시코 전신이었던 테노치틀란(Tenochtitlan) 마지막 황제였던 모테수마(Moctezuma)의 후손이 이번 대선에 출마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1502년부터 스페인인이 도착할 때까지 테노치틀란을 통치했던 9대 우에이 틀라토아니(Huey Tlatoani)의 후손이다.

후손 중에는 주지사, 과학 박사, 인권 대변인, 사회운동가, 무기를 들고 원주민 권리쟁취를 위해 반군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파티스타(민족해방군)의 Mario Ortiz Tobilla 같은 역사적 인물도 있는데 이번에 대선출마 선언한 후손이 가장 정치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이름은 이투리엘(Ituriel)로 40세의 나이이다.

이미 100명의 원주민 지도자들로부터 지역을 대표한 위임을 받았으며 '강력한 치안확보, 무기 소지허용, 마리화나 합법화, 지역사회 경비대 창설, 지방 자치 단체의 완전한 독립, 그리고 헌법으로 원주민 권리 보장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출산 중 사망한 모테수마 소코요친(Moctezuma Xocoyotzin)의 첫 번째 부인의 딸인 테레사 프란시스카(Teresa Francisca)의 후손으로 알려져 있



다. 스페인군에 협조한 당시의 지방부족 틀락스칼란(tlaxcaltecas) 연합군과 황제측 군사들과의 대결에서 죽음을 피한 몇 안 되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국가기록원(Archivo General de la Nacion)이 밝히고 있다.

Ituriel Moctezuma의 혈통은 서로 다른 결혼 생활을 한 20명의 자녀를 둔 두 번째 아즈텍 황제로 알려진 Moctezuma Xocoyotzin 이후로 기록된 가계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중 16명은 에르난 코르테스가 이끄는 스페인 정복군과 그의 동맹자들과의 전투에서 사망했다.

출마 선언을 한 Ituriel Moctezuma는 'Anahuac'이라는 당을 창당하여 이를 기반으로 삼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그는 "15일 전 Anahuac 협정 국회가 San Juan Teotihuacan에서 향과 코팔, 북과 소라껍질, 기도와 춤이 어우러진 의식으로 자신에게 모든 권한을 위임했으며 이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모테수마의 출정식에는 전통의

복을 갖추고 깃털을 든, 전국 각지에서 모인 백여 명의 지역 대표와 지지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통계지리연구소(Instituto Nacional de Estadística y Geografía)의 통계에 따르면 멕시코의 원주민 인구는 총 1,18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9.4%에 해당하며 이 중 730만 명이 원주민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공식적인 정당으로 활동하기 위해 오는 9월까지 서명을 받아 2025년까지 등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편, Ituriel Moctezuma는 아직 자신들의 정당이 등록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올해 대선에서는 무소속 후보로서 이름과 사진을 투표용지에 게재해 달라고 국립선거연구소(INE)에 요청했다.

멕시코 법에 따르면 무소속 대통령 후보의 경우 시민 단체로 등록하고 유권자 명부의 1%를 모으면 최소 17개 연방주에 대통령 후보로 이름을 올릴 수 있게 된다.

요건이 충족되면 정부는 그의 캠페인에 자금을 지원하게 된다.

하지만, 작년인 2023년 11월 15일 중앙선거위에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정당을 통한 등록과 무소속후보로 등록조건 중 어느것도 부합되지 않아 선거위는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선거자금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투표용지에 이름을 올려 달라는 것으로 이는 헌법상 권리" 라면서 "전통적인 시스템을 통해 대표자를 선출할 원주민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 판단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황제후손의 대선출마와 관련, 일부 역사가들은 "과거에 대한 낭만화 또는 이상화"라고 비판하고 있다. 반면에, "원주민은 계속해서 자신의 관습을 실천하는 살아있는 문화"라면서 옹호하는 측도 있다.

실제, 작년에 멕시코 원주민들은 의회가 멕시코 조상들의 지식을 과학 지식으로 인정하면서 국가과학기술위원회(Conacyt)의 지원을 받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었다.

이 법안의 발의자인 Maria Eugenia Hernandez 하원의원은 "우리보다 먼저 생명과 물리적 현상을 경험한 조상들이 수 세기 동안 대대로 전해 내려온 지식을 우리는 그동안 무시해 왔었다"면서 "이들의 활동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국가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 캐나다, 망명신청 늘어나자 멕시코인 무비자에서 다시 비자 요구

그동안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던 캐나다 정부가 다시 멕시코인들에게 비자를 요구하고 있다. 이유는 입국하는 멕시코인들이 원래 취지를 벗어난 비자 악용을 방지하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이유가 멕시코인들의 난민 신청 유입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퀘벡주 정부수장인 프랑수아 레고(Francois Legault)는 최근 캐나다 총리 저

스틴 트뤼도(Justin Trudeau)에게 멕시코인들에게 비자 재발급을 요청하면서 "2023년 첫 11개월 동안 다른 캐나다주보다 1인당 난민 신청수가 3배나 많은 6만명의 난민 신청자가 퀘벡주에 접수됐다"고 밝혀 이같은 사실을 뒷받침 했다. 미국 역시 캐나다에서 넘어오는 불법 횡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오타와에 비자 요건을 복원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양국이 같은 이유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멕시코인들에 대한 비자 발급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비자는 지난 주 금요일부터 다시 시행이 되었으며 사전에 비자를 발급 받은 사람만 입국이 가능하게 됐다. 이전 스티븐 하퍼(Stephen Harper) 총리의 보수당 정부때 멕시코인들의 망명신청의 흐름을 막기 위해 2009년

비자 요건을 부과했는데 현 트뤼도 정부가 2016년에 이를 완화하였지만 이번에 다시 비자정책을 되돌린 셈이다. 캐나다 정부는 아직 이 요구 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현재 특정 유형의 미국 비자를 소지한 멕시코인과 유학 또는 취업 허가를 받아 캐나다를 여행하는 사람들은 지금과 같이 무비자로 입국이 가능한 상태다.



# 멕시코 의회 여성비율 50.6%, 성평등 부분 세계 4위

멕시코 정치권에는 유난히 여성이 많다. 얼핏 보기에도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아 보이는데 실제 전체 의회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절반이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 의회는 여성 의원 비율이 전 세계 186개 의회 중 4위로 전체 의원의 50.6%를 차지했다.

하원과 공화국 상원은 여성 의원의 비율이 61.3%로 르완다 의회 다음으로 성평등이 두드러졌다.

쿠바 국민의회는 55.7%, 니카라과 국회는 53.9%를 차지했다.

IPU(Inter-Parliamentary Union)의 가장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여성 국회의원 순위는 안도라(50%), 아랍에미리트(50%), 아이슬란드(47.6%), 코스타리카(47.4%), 스웨덴(46.7%), 볼리비아(46.2%) 등이 높은 비율에 속하는 국가다.

반대로, 여성 참여 부문이 극히



낮은 국가로는 투발루의 의회로 16명의 의원 중 한 명도 없다.

예멘, 335명 중 1명, 바누아투(51명 중 1명), 쿠웨이트(65명 중 2명), 카타르는 45명 중 2명, 부탄은 47명 중 2명, 팔라우는 29명 중 2명이다.

IPU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36.7%), 독일(36.5%), 이탈리아(34.2%), 영국(31.8%), 칠레(30.7%), 미국(27.1%), 중국(26.5%), 일본(18.4%), 러시아(17.6%), 브라질(17.4%) 등이다. 미국 등 선국 국가에서 여성비율

이 의외로 낮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IPU는 약 180개의 의회가 소속되어 있으며 2023년 등록된 선거 및 임명을 기준으로 전 세계 여성 의원의 비율이 26.9%로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미주 지역에서는 2023년 재임 예정인 의회에서 선출되거나 임명된 전체 의원 중 여성이 42.5%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이다. 따라서 이 지역은 여성의 비율이 35.1%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지역으로 오랫동안

안 자리를 지키고 있다.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일정 비율의 여성 할당제는 여성의 의회 진출을 확대하는 중요한 요소인데 특정 유형의 할당량이 있는 43개 국가 의회에서는 평균 28.8%의 여성이 선출된 반면, 할당량이 없는 국가에서는 23.2%가 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멕시코의 경우 여성 고위직 의원이 돋보이는데 하원 의장 마르셀라 구에라(Marcela Guerra)와 상원 의장 아나 릴리아 리베라(Ana Lilia Rivera)의 사례가 눈에 띈다.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몇몇 고위급 여성 지도자들이 정치권에서 이탈한 경우인데 이들 중 다수는 여성에 대한 차별과 온라인 괴롭힘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여성들의 제도권 유입을 환영하면서도 보이지 않게 차별과 비판이 존재하고 있어 앞으로 해소해야 할 문제점으로 지적받고 있다.

## 끊이지 않는 멕시코 연료절도, "답이 없다"

Pemex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멕시코주에서 10,027개의 비밀 연료 폭지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Hidalgo와 Veracruz주에서 집중적으로 발견되고 있다.

2023년 한 해만 놓고보면 주 내에 1,482개의 석유 절도현장이 적발되었는데 2,227개가 있던 2022년에 비해 33.45% 감소한 수치다. 2018년에는 1,517곳, 2019년에는 1,795곳, 2020년에는 1천273곳, 2021년에는 1천733곳이다.

특히, 1,592건의 탭이 발견된 오투바(Otumba) 지역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가장 은밀한 절도 건수가 발생한 지역이다. 그 다음으로 Axapusco(1,186건), Acolman(1,102건), Teotihuacan 계곡이 뒤를 잇고 있다. 2021년에 주에서 6년 만

에 가장 높은 수인 399건을 적발한 Acolman의 Morenista 시장 Rigoberto Cortés Melgoza는 2023년 Teotihuacan 계곡의 연료절도 감소가 연방 및 주군의 순찰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풀이했다.

특히 방위군과 해군,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협력이 성과를 내고는 있지만 특이한 점은 연료 누출이 발생할 경우에만 현장 출동하고 사전 예방조치에 해당하는 원유 파이프 라인을 감시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감시 강화는 범죄집단의 수익 다변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화물 운송 강도, 차량운전자 상대 강도행각, 무기 판매, 마약 거래가 단속에 비례해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연방 정부의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우에우에토카(Huehuetoca) 자치단체 산타 데

레사 인근에서 huachicoleo(연료절도) 전용 조직이 운영되고 있는데 국가 방위군(국가 안보 사무국)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 주민들이 범죄 집단과 연방 및 지방 당국과의 공모가 있다고 주장하는 증언과 일치하는 부분이다.

특히, 조직원 중 한 명이 체포, 구금되면 SSEM(주정부 관할 경찰)고위직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즉시 석방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불법연료 파이프에서 기름을 넣던 트레일러에 순찰차가 접근하면 이 조직을 보호하던 다른 지방 경찰이 총격을 가해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한다.

지역 관할권을 두고 다투는 모습이지만 실상은 자신들이 이익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연료절도를 전문

을 일삼는 조직들은 페멕스 내부 공모자들로부터 자세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와 주 경찰, 육군, 현재는 방위군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어 사실상 근절은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절도를 위해)의도적인 접근으로 송유관 파이프라인을 뚫기도 하지만, 현재의 Pemex(국영석유회사)의 파이프라인은 60년 이상 운용되어왔기 때문에 누수로 인한 피해도 막대하다.

노후화된 송유관에 인접한 주민들은 연료 누출로 인한 위험이 늘상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막대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멕시코 국영석유회사도 이를 잘 알고 있지만 현재의 재정상태로는 엄두를 낼 수도 없어 앞으로 수년간은 이같은 피해가 계속될 전망이다.

## 양육비 미지급 급증, 법원 명령 어기면 교도소행

'이혼' 하면 멕시코도 만만치가 않다. 사실혼에서 헤어진 경우를 모두 포함할 경우 상당한 수의 부부가 헤어져 남남으로 살고 있다.

이혼하면 자녀를 맡아 키우는 쪽에 '양육비'를 지급해야하는 건 거의 세계 공통으로 적용되는 법조항이다. 멕시코도 예외가 아니다.

비양육 부모는 정기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 최근들어 양육비 미지급 사례가 크게 증가하면서 자녀를 맡고 있는 한 쪽 부모는 자녀 부양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년을 기준으로 한 통계를 보면 2020년 17,000건에서 2023년 27,000건 이상으로, 4년 만에 53%나 증가했기 때문이다.

전문가에 따르면, 법적 권리를 찾겠다는 요구가 더 커지면서 이 같은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만큼 과거와 달리 법률적 조언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호전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그럼에도 실제 양육비 지급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은데 대부분 한쪽 파트너, 특히 남성이 잠적하면서 거주지를 몰라 강제집행이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럴 경우 여성쪽에서 거주지를 찾아내 사진을 찍어 법원에 제출해야만 강제력을 통한 양육비 지급을 보전 받을수가 있다. '가족 부양 의무 불이행'으로 형사 고소장 제출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교도소에 수감 될 수도 있다.

멕시코 전국 검찰청의 수치를 집계하는 국가 공안 시스템 사무국

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이같은 부양의무 불이행은 크게 증가했는데 코로나 대유행으로 직업을 얻지 못한 경우가 많았던 것이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으로 가장 힘든 해부터 시작하여, 강제집행을 요구하는 소송은 2020년 17,678건에서 2021년 23,285건으로 증가했고, 2022년 23,856건으로 안정되었으나 2023년에는 27,071건으로 급증했다.

"누군가 부양료 지급을 거부하면 미성년자, 공부하는 젊은이, 특히 가정에 헌신하고 딸과 아들을 돌

보는 여성에 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 이라면서 "이는 '폭력'에 해당한다" 라고 전문가는 지적한다.

지금도, 자녀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아 가정법원에 고소하는 일이 늘어나고 있으며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는 검찰청에서 형사절차를 통해 강제 지급에 나서게 된다.

예를 들어 'Sonia'는 딸에 대한 부양금과 자신에 대한 위자료로 'Juan'에게 지급을 청구한다.

판사는 Juan이 매달 받는 월 수령액에서 40%를 지급하라고 결정한다.

만약,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곧바로 조사에 나서게 되며 정당한 이유없이 지급을 거절할 경우 구금 등 재제조치가 내려지게 된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3년을 기준으로 멕시코 주(3,027건), 과나후아토(2,761건), 치와와(2,581), 타마울리파스(1,829), 소노라(1,807) 및 바하 켈리포니아(1,224)가 소송을 많이 한 주로 나타났다.

## 운송트럭 한 대당 5만페소 요구, 갱단 강탈에 울부짖는 사탕수수 재배농민들

대규모 경작지나 여기에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갱단의 강탈수위가 점점 높아져 가고 있다.

강탈과 마피아 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모렐로스 사탕수수 재배자들은 지역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할리스코 카르텔과 라 유니온, 로스 아카폴코스, 게레로 유니도스 등 이들과 연계된 범죄 집단이 할당량을 책정해 놓고 돈을 뜯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로, Coautla. Cuautla에 있는 La Abeja de Casasano 설탕 공장의 공급업체인 사탕수수 생산업체에 강탈행위가 발생했는데 주변 지역 농장은 대부분 이같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3개의 시민 생산자 협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작년 11월

에 시작하여 올해 7월에 끝나는 수확 작업을 위해 6년 동안 약 350만 페소를 공동으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농장측에 대한 직접적인 강탈은 물론이고 여기에 더해 농장에 드나드는 운송업자들에게도 같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사탕수수를 밭에서 공장으로 운반하는 운송업자들에게 각각 2만 페소의 지불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La Abeja de Casasano에는 약 130대의 트럭과 15~20대의 로더(밭에서 사탕수수를 들어올려 트럭에 싣는 기계)가 있다. 공장측에 따르면 수확에 동원되는 기계수에 따라 상납금액이 책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중 일부가 반감을 표시하자 무장한 괴한들이 생산자, 운송업자 집을 공격하고 있으며 운송업주는 살해했다. 결국, 일부 사탕수수 재배자는 위협을 느껴 아예 지역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생산업자들에 따르면 Jalisco New Generation Cartel(CJNG), Guerreros Unidos, Los Acapulcos 및 La Union Tepito는 같은 조직으로 확인되었다.

조직들은 재배업자들이 연간 수입액을 얼마인지 알고 있을 정도로 지역 사정을 잘알고 있으며 심지어 리스트를 만들어 일정액을 모두 강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원청업체에서부터 하청업체에 이르기 까지 수직계열로

돈을 뜯어내고 있는 것이다.

지역 주교에 따르면, 사탕수수를 갈기 위해 설탕 공장에 들어가는 트럭 한 대당 최대 5만 페소의 보호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모렐로스는 전통적으로 사탕수수 재배가 관개 토지 측면에서 1위이며 생산량이 가장 많은 곳으로 잘 알려져 있다. 지역 농토 70%가 사탕수수를 심고 있을 정도다. 토질이 좋아 평균 수익성은 헥타르당 105톤에 이른다. 전국 평균은 헥타르당 75톤에 비해 월등하다. 조직범죄에 의한 괴롭힘 외에도 사탕수수 생산자들은 기상 조건도 좋지 않은데, 올해 처음으로 비가 제대로 내리지 않아 이중의 피해를 보고 있다. (관련기사 11면)

# 값싼 중국차 상륙에 멕시코 중고차 시장 급냉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경쟁력을 앞세우는 중국산 자동차가 멕시코에 진출하면서 중고차 가격이 급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산 새차나 다른 메이커 중고차 가격이 별반 차이가 나지 않으면서 이왕이면 새차로 구매하겠다는 고객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같은 현상은 팬데믹 기간에 자동차용 컴퓨터 부품부족으로 신차공급에 어려움을 겪던 다른 제조사와는 달리 재고가 많아 물량 확보에 문제가 없던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멕시코 시장에 새로 진출하면서 빚어진 현상이다.

중고 자동차 업계에서는 대략적으로 2021년부터 중고차 판매 호황이 끝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멕시코 자동차 딜러 협회(AMDA)의 통계에 따르면 작년 1월부터 12월까지 신차 구매 신용은 2022년에 비해 17% 증가한 반면, 중고차 구매 신용은 1.1% 증가에 그쳤다.

이는 팬데믹으로 인해 3.4% 감소한 2020년을 제외하고 2015년 이후 용자 차량 성장률이 가장 낮았는데 대출 이후에는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4.2%, 15.2% 성장했다.

작년에는 총 758,459대의 신차와 140,206대의 중고차가 판매됐다. 멕시코 중고차협회(ANCA)의



라파엘 루에다 회장에 따르면, 2021년과 2022년에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으로 인한 딜러의 신차 부족으로 중고차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격도 덩달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멕시코 중고차 판매 플랫폼인 카박(Kavak)과 OLX 오토스(OLX Autos)는 시장 가격을 높였다가 작년부턴 완화하기 시작했다.

작년에는 Omoda, Jaecoo, Geely, GAC, Great Wall Motors, SEV, BYD와 같은 중국 브랜드가 등장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중고차 중 일부 모델은 가격이 3만~4만 페소까지 인하되었는데, 이는 중국 브랜드가 자동차 시장 점유율의 20%를 차지한 것과 일치하고 있다.

실제, 415개 회원사로 구성된 멕시코 중고차 매매 협회인 ANCA는 작년 판매량이 15%에서 20% 감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중국산 자동차의 공급은 중고차를 찾는 사람들에게 신차를 사는 것과 동등하거나 더 매력적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렴한 중국산 자동차에 눈을 돌리게 된 계기가 되었다.

루에다는 기아 자동차 2019년 모델이 47만 페소에서 48만 페소 사이의 중고차 가격이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예로 들며, 거의 동일한 특성을 가진 55만 페소의 중국 차량과 경쟁하지만 이는 '신차(新車)'라고 설명했다. 즉, 7만페소 정도만 더 지불하면 새차를 구매할 수가 있게 된 것이다.

중고차 가격 하락에는 신차 공급이 팬데믹 이전에 존재했던 공급량 부족 문제에서 완전히 회복된 점도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중고차에 대한 수요 거품이 생겨 중고차 가격이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상승하면서 인

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했었는데 한 때 멕시코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었다.

새로운 중국 브랜드는 충분한 자금조달로 영업망에 대한 더 좋은 조건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데 현재의 추세대로라면 머지 않은 장래에도 로변에서 중국산 자동차를 쉽게 접할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영향은 결국 중고차 업체에 그대로 전이되는데 대표적인 중고차 업체였던 Kavak과 OLX Autos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작년 중반에 OLX Autos는 멕시코 국내 영업을 중단했고, 1월에는 Kavak이 콜롬비아와 페루에서 영업을 중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신차와 중고차가 경쟁하기 시작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특히, 중고차는 자동차 딜러에게 기회의 영역이지만, 중국 브랜드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신차 시장의 '과열 경쟁'으로 인해 딜러의 수익 마진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더 큰 전문화와 디지털 서비스 역량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멕시코에서는 매년 약 500만 대의 중고차가 판매되고 있으며, 대부분 개인에게 판매되기 때문에 공식적인 수치는 없는 상태다.

10면에 이어..

갱단들의 움직임은 수확철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화요일부터 무장한채로 나타나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경고 문구를 써놓거나 위협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업자들은 대책마련에 나섰다는데 트럭 한 대당 일정 금액을 지급하기로 합의를 했다.

일부 농장주는 차라리 사탕수수를 모두 소각하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문제는 농장주에 대해

서는 합의를 했지만 이들에 고용되어 일하는 운송업자들에 대해서도 별도의 보호비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 농작물을 수확하는 기계에 대해서도 대당 금액을 책정해놓고 상납을 요구하고 있다. 돈을 내지 않으면 들판까지 쫓아가 기계 작동을 못하게 방해하고 있을 정도다. 대부분의 트럭 운전사와 리프터 기사들은 일정금액을 지불한 후 작업에 나섰다지만 일부 반대자를 살해한 것이 확인되면서 결국 공장들은 문을 닫았다.

사탕수수 재배자들 사이에 나온 얘기에 따르면, 범죄자들은 운송업자와 함께 은행에 가서 돈을 인출하고 현장에서 수금(?)하면서 해당 트럭에 대해 납부 증명 스티커를 붙여준다는 것이다.

강탈의 시작 6년 전부터인데 범죄조직은 처음 5년간은 농장주에게만 요구했으나 올해들어 트럭과 지게차 등 사탕수수 수확에 사용되는 모든 기계에 대해 돈을 뜯어가고 있다는 것이다. 협박당하고 있는 일부 농장주에 대해 경찰

이 바리케이드를 치고 경계에 나섰다지만 실질적인 도움을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갱단들의 공격에 직면한 생산자들은 과묵적인 상황에 몰려있다. 사탕수수는 자른 후 곧바로 공장으로 이동하지 않으면 쉽게 상하면서 상품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현재 지역에는 5천여명의 생산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설당 공장에도 500여명의 가족의 생계가 걸려 있어 이들의 분노는 극에 달해 있지만 당국의 대책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 과나후아또에서 떠나는 기업들, "불안해서 사업 못하겠다"

10년 전에는 누에보레온보다 과나후아또에 더 많은 자본이 들어왔지만, 지금은 북쪽으로 가는 기업이 훨씬 더 많아졌다. 이유는 역시 치안불안 때문이다.

멕시코 경제부(SE)의 데이터에 따르면, 10년 전 과나후아또(Guanajuato)는 누에보레온(Nuevo Leon)보다 더 많은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했으며 가장 많은 자본을 유치한 5개 주 중 하나였지만 2023년에는 상위 10위권에서 밀려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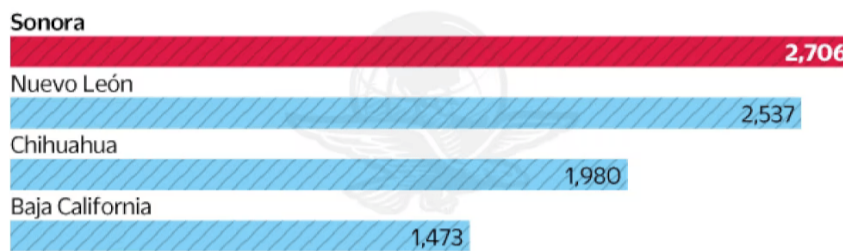
산업상공회의소연맹(Concamin)의 호세 아부가베르(José Abugaber) 회장은 "말하기가 슬프지만 과나후아또는 누에보레온보다 더 많은 투자지역이었지만 보안문제로 현재는 낮은 수준" 이

### Vinculos duraderos

Estos estados se repartieron la cuarta parte del capital foráneo.

#### Inversión extranjera directa

Millones de dólares en 2023



라고 인정했다.

2010년대에는 기업들이 누에보레온에 머물지 않고 보안이 있는 Bajío(Michoacan, Queretaro, Jalisco, Aguas calientes, Guanajuato) 지역에 집중적으로 몰렸들었지만 10여년이 지난 지금은 정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즉, Bajío 지역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중요한 붐을 누렸지만 Tesla의 경우처럼 북부 국경에 더 가까워지려는 새로운 투자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유는 역시 기업 운영은 물론 직원의 생명까지 위협받는 지역

에서 누가 기업을 지속하겠느냐는 것이다.

운송비용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이나 차량을 북쪽 국경으로 가져가는 데 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중부 지역에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해석도 있다.

멕시코 경쟁력 연구소(Imco) 소장 Valeria Moy는 여기에 더해 산업 단지의 포화, 전기 에너지 부족, 직원채용의 어려움 등으로 대규모의 민간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외국인직접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북부주는 소노라, 누에보레온, 치와와, 바하칼리포르니아 등으로 86억9600만달러를 집중시켰다. 이는 전체 외국인 직접 투자의 25%에 해당한다.

## Amazon Web Services, 멕시코에 50억 달러 이상 투자

아마존 웹 서비스(AWS)가 케레타로의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에 5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지난 월요일 발표했다.

최근 멕시코에서 발표된 가장 큰 규모의 투자 중 하나인 이 투자는 15년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지만, 미국에 본사를 둔 전자 상거래 대기업 Amazon의 클라우드 컴퓨팅 자회사는 새로운 "AWS 인프라 지역"을 출시할 계획이다.

Amazon의 AWS 클라우드 서비스는 많은 최신 웹사이트와 기능을 뒷받침하게 된다.

특히, 새로운 AWS 멕시코(중부) 지역은 정부, 교육 및 비영리 조직 뿐만 아니라 개발자, 스타트업, 기업가 및 기업에게 멕시코에 위치한 데이터 센터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고 최종 사용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게 된다.

AWS(아마존 웹서비스)는 라틴 아메리카에 대한 장기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15년에 걸쳐 멕시코에 50억 달러(약 MXN 850억 달

러) 이상을 투자할 계획인데 고객에게 안전한 고급 클라우드 기술을 제공하기 위해 AWS의 지속적인 투자지역으로 멕시코를 선택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를 5년 넘게 진행해 왔으며 클라우드 컴퓨팅은 기업이 인터넷을 통해 스토리지 및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기술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여 물리적 데이터 센터와 서버를 소유하고 유지할 필요성을 없애주게 된다.

한 조사에 따르면, 기업이 AWS를 사용하면 기술 비용을 약 20%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회사의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멕시코 회사 중에는 Aeromexico, Banco Santander Mexico, BBVA 및 Cinopolis가 있으며 Michoacan 주정부도 포함되어 있다. Amazon 자회사는 이미 멕시코에 7개의 "CloudFront 엣지" 위치와 케레타로에 "AWS 로컬 영역"을 보유하고 있는데 뉴멕시코 출신의 역

## '갱단 천지' 아이티 주민들, 칼 들었다... 자체 방어 나서

카리브해 섬나라 아이티에서 갱단이 수도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며 극심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주민들이 자경단을 조직해 자체 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미국 CNN 방송이 보도했다. CNN 등 외신에 따르면 현재 수도 포르토프랭스의 80%가 갱단에 장악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도에선 매일 경찰과 갱단 간에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주민들이 두려움에 외출을 자제하면서 시내 도로는 텅 빈 상태다. 한때 자동차와 인파로 붐볐던 포르토프랭스의 '투생 루베르튀르 국제공항' 앞 넓은 도로는 '종말 이후'의 고요함을 느끼게 한다고 CNN은 전했다.

갱단은 이달 초부터 공항·경찰서·정부 청사·교도소 등을 잇따라 공격하고 있고, 도시 전역의 식량·연료·물 공급을 막고 있다. 그나마 현지 경찰이

수도 전역에서 한 블록씩 통제를 되찾기 위해 싸우고 있지만 기업과 학교들은 연이어 문을 닫고 있다. 치안 부재 속에서 포르토프랭스의 일부 구역 주민들은 '브와 케일'(bwa kale)로 알려진 자경단 운동으로 갱단에 맞서고 있다. 자경단원들은 마체테(날이 넓은 큰 칼)로 무장하고 지역 경찰과 공조하면서 갱단과 싸우거나 이들을 몰아내고 있다. 포르토프랭스 카나프 베르 구역은 자경단 덕분에 그나마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자경단에 속한 한 대원은 CNN 인터뷰에서 "갱단의 반복적인 공격 시도를 격퇴했다"면서 "마체테와 맨주먹으로 무장한 채 갱단을 막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 경찰은 "자경단을 잘 알고 있으며 그들에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자경단이 경찰서를 갱단의 공격에서 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만장자 제프 베조스가 소유한 아마존은 2015년 멕시코에 들어온

이후 멕시코에 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매주 월요일은 휴무

숯불구이 전문점

# LA CASA COREANA

(구)한려수도가 '숯불구이 전문점' 으로 변신합니다



넉넉한 실내 공간과 고급스러운 분위기로 손님 접대에 안성마춤,  
각종 모임 환영! 귀한 손님을 위한 귀한 장소로 명성을 이어 갑니다!

**각종 모임 예약받습니다!**

- ▶ 단체 40석 ▶ 단체 20석 ▶ 오붓한 가족모임 6석
- ▶ 귀한 손님을 위한 VIP 12석

**예약 문의 Tel. 5514-8683 / Cel. 55-1801-2313**

Av.Chapultepec No.425 Col. Juarez (하림각 맞은편)

[www.lacasacoreana.com](http://www.lacasacoreana.com)

[www.restaurantecoreano.com](http://www.restaurantecoreano.com)

# 제22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The 22<sup>nd</sup> Overseas Elections for National Assembly Members



# 3.27. ~ 4.01.

세계 곳곳에서 전하는 한 표  희망찬 대한민국 미래의 시작

Each vote from every corner of the world, the beginning future of the Republic of Korea filled with hope

**투표기간** **2024.03.27.~04.01.**  
**Voting Period**

매일 08:00~17:00 every day

※ 기간 중 공관별로 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The voting period may vary from one diplomatic mission to another.



선거정보 등 확인  
ok.nec.go.kr

**투표장소** 재외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장소

**Voting Place**

The place designated by the Overseas Election Commission

**투표대상**  
**Eligible Voters**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사람

Korean nationals enrolled in official lists of overseas absentee voters or overseas eligible voters

**준비물**  
**Required Documents**

신분증명서 (단, 재외선거인은 국적확인서류 원본 함께 지참)

※ 국적확인서류에 사진이 첨부된 경우 별도의 신분증은 필요없음.

※ 국적확인서류는 해당 공관의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

An identification certificate

(Overseas eligible voters should also prepare original copies of the documents required to identify the nationality.)

※ Additional identification certificates are not necessary if a photo is attached to the documents that identify the nationality

※ Documents to identify the nationality are available on the website of the relevant diplomatic mission.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홈페이지(ok.nec.go.kr), 외교부 홈페이지(mofa.go.kr), 재외동포청 홈페이지(oka.go.kr)에서 선거정보 등 확인 가능

For further information, please visit the websites for the Overseas Elections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ok.nec.go.k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mofa.go.kr), and Overseas Koreans Agency (oka.go.kr).

Mexico city / 멕시코시티

20년 전통 중화요리 전문점

賀琳覺 하림각  
Haringak

멕시코시티 유일한 중화요리 전문점

짜장/ 짬뽕/ 탕수육/ 깡풍기/ 양장피/ 만두 등 40여가지 메뉴

예약 문의

55-5511-3939 / 55-5511-2848

Praga 54 Col. Juarez CDMX Mexico city

[www.haringak.com.mx](http://www.haringak.com.mx)